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열어갑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18호 2004년 5월 7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중소기업 금융애로 종합대책 발표

- 정책자금 추가조성, ABS 신규발행, 특수목적펀드 결성 등 -

중소기업청은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6,000억원 추가조성, 9,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2,2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 펀드 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창무 중기청장은 현재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이 실물부문에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판매 부진,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어음결제기일의 장기화,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격화 등에 따르는 내수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이고, 금융부문에서는 연체율 상승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신규대출 곤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우량기업과 한계기업간 등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정책자금의 조기집행, 소기업 특례보증,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확대 조치와 최근 정치상황과 맞물려 발생할 수도 있는 경제적 충격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 금융권의 대출금 조기회수 또는 대환기피 자제 촉구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담보력 및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에 정책자금 추가조성, ABS 발행, 특수목적 펀드 결성 등 추가적인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책정된 2조 4,000억원의 정책자금 외에 6,000억원(구조개선자금 4,400억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1,000억원, 중소·벤처 창업자금 6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정책자금 규모를 총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업성과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의 70%이상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 규모를 당초 40조7,000억원에서 3조원이 증가한 43조7,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 프라이머리CBO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적정수준의 상환을 전제로 일반보증으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스타펀드(1억불), 일자리창출펀드(200억원), 대·중소기업협력펀드(350억원), 인수합병(M&A)전용펀드(200억원), 세컨더리펀드(300억원) 등 2,2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 펀드를 오는 8월까지 결성하여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중견기업 프라이머리CBO 5,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 4,000억원 등 총 9,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신규로 발행키로 했다. 중진공의 자산유동화증권은 이달부터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7~8월경에 공모에 들어가며, 신보가 발행하는 프라이머리CBO는 올해 안에 3~4회에 걸쳐 발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금융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협조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에 360억원의 R&D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주력 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360억원의 전략과제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수출유망품목, 지역특화품목 등 정부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수요건인 단위제품의 개발에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각계의 개발수요를 사전 조사·분석하여 중소기업형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신규로 추진되는 "산학연계 지역특화산업부문"은 대구 자동차, 광주 광산업, 대전 생명산업 등 16개 시·도의 추천을 받은 "지역특화산업" 관련된 우수과제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 과제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142과제, 주력 기간산업 122과제, 수출유망품목 138과제,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139과제, 우수특허기술 316과제, 산학연계 지역특화산업 과제 등 총 1,280개 과제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방중기청의 현장·경영평가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평가 등을 거쳐 470여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기술개발비의 75%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월10일부터 5월22일까지 기업의 주된 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우수특허기술과제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하면 된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6)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2,470개 중소기업 지원

- 192개 컨소시엄, 2,459개 과제에 300억원 투입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 최근 제조업 공동화와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의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192개 컨소시엄, 2,470개 기업(2,459개 과제)에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202개 컨소시엄에 3,263개 기업(3,241개 과제)이 신청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으나, 사업자 선정결과 지난해에 비해 컨소시업수는 9개, 참여기업수는 101개, 지원과제수는 128개가 각각 늘어났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지역 향토산업이나 지역 전략산업 등을 수행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특성화 컨소시엄"으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14천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특허출원 3,429건, 시제품제작 9,065건, 공정개선 6,534건의 높은 기술개발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2)

중소기업 46%가 기술수출 희망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해외기술협력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48개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46.4%인 115개 업체가 기술수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35.1%인 87개 업체가 기술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 희망지역(복수응답)으로는 중국이 59.6%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일본(41.2%), 북미(40.4%), 아시아(27.2%), 서유럽(21.9%) 등의 순이며, 기술수출 희망분야로는 정보통신(38.9%), 전기전자(18.6%), 바이오(15.0%), 기계소재(12.4%)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수출방식으로는 라이센싱 판매방식(5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동개발 및 공동연구(32.7%), 기술소유권판매(15.0%) 순이 였으며, 기술수출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기술수출 비용 지원(69.1%), 해외박람회 참가지원(45.5%), 해외에서의 국내기술설명회 개최지원(33.6%), 계약 및 관리업무지원(27.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도입 희망지역으로는 미국(37.6%), 러시아 및 CIS(34.1%), 일본(31.8%), EU(11.8%) 순이며, 기술도입 희망분야로는 기계소재분야(45.7%) 및 정보통신분야(38.7%)는 관심이 큰 반면, 화학생명분야는 23.5%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 이유로는 경쟁기술 확보(42.5%)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기간 단축(34.5%), 개발비용 절감(23.0%), 새로운 사업개시(18.4%)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진공, 한국기술거래소, 무역협회 등의 해외사무소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 D/B를 활용하여 국내외 기술거래를 알선하며, 기술수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기술거래소의 우수기술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며, 해외도입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이전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에 개최예정인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는 미국관, 영국관, 일본관 등 해외관 운영과 더불어 해외우수기술설명회도 개최하여 해외기술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36)

엔젤투자 가이드북 발간

중소기업청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엔젤투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와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엔젤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에는 엔젤의 개념과 엔젤투자 성공 10계명, 투자대상기업의 발굴과 평가, 투자자금 회수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엔젤클럽 및 개인투자조합 결성, 세제지원, 투자설명회개최 등 엔젤투자와 관련된 각종 정부의 지원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

중기청은 그 동안 엔젤클럽 등 민간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클럽결성, 투자마트 개최 등에 대해 각종 간접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냉각된 투자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5월 엔젤투자협력체(KBAN : Korea Business Angel Network)를 결성하여 엔젤클럽의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15차례 엔젤 투자마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엔젤투자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신규 엔젤클럽 결성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엔젤클럽 중심의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료로 배포될 가이드북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중기청 벤처진흥과나 KBAN사무국(02-3424-672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
(042-481-4421)